



총선의 해가 밝았다

한나라 압승이나 야당 개헌 저지선 확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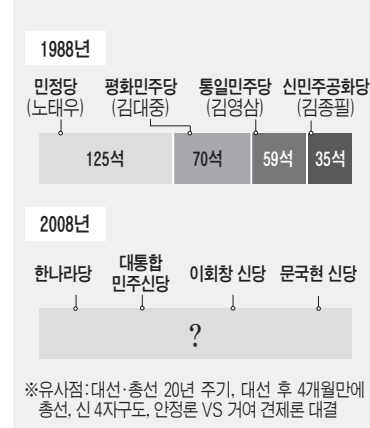
(100석)

17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18대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행보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18대 총선이 지난 1988년 13대 총선과 닮은 형태를 띠는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87년 대선 결과 노태우 후보가 득표율 36.6%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김영삼·김대중·김종필 후보와 '1강 2중 1약'의 4자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2007년 대선 역시 이명박·정동영·이회창·문국현 후보 등이 '1강 2중 1약' 체제를 만들었다. 87년 대선 4개월 뒤 열린 총선에서는 민정당·평민당·통민당·신민주공화당 등 순으로 의석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 신당, 창조한국당 등 4자 구도 또는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18대 총선에서 예상되는 구도와 판세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 1988년 VS 2008년 총선 비교



집단 탈당으로 이어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세력과 연합할 공산이 크다. 이회창 전 총재가 신당을 만들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박근혜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신당의 분열도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대선 패배 책임 공방과 당 쇄신 과정에서 세력 간 공방이 격해지면 이탈 세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대선 패배 책임의 첫 대상은 친노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친노 책임론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신당'을 창당할 경우 분열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 대선 패배인 정동영 후보가 또다시 대리인을 내세워 당권을 미련을 보인다면 분열상은 더욱 확대될 신당의 와해까지 불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신당과 창조한국당 등 개혁세력이 통합하고 민주당도 이에 동참한다면 한나라당, 이회창당, 중도개혁세력 신당, 민노당 등 4자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

◇판세=현재까지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모두 110여석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이외의 당이 차지할 의석이 10석 미만인 것이라 예상까지 나온다.

현재 구도에서 신당의 경우 60~70석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당의 김형주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전망과 관련, "지금 이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저희 당이 70석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전라도, 호남

당으로 전략하는 것"이라고 위기감을 표출했다. "70석도 많다"고 보는 의원들도 상당하다. 호남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31석에 수도권에서 10여석을 건지고 기타 지역에서 5석, 전국구 10여석 등 60석을 채우기 힘들 것이라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또 민주노동당의 경우 5~6석 규모의 정당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창조한국당도 5석을 차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공천을 잘 할 경우 2~3석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관측이다. 이회창 당의 경우 선전하면 충청·영남 등에서 20여석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나 개혁세력과 호흡을 계속 함께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한 것은 개혁연명에서 향후 정국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과 그 지지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신당을 포함한 개혁세력의 1차 목표는 개헌저지선 확보 즉, 100석 이상을 얻으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역시 변수는 있다. 이 당선자가 당내 인적 청산을 시도하면서 박근혜와 결별할 경우에는 총선 결과는 예측이 힘들어진다. '박근혜+이회창' 당이 예상 외의 선전을 하면서 원내 2당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명박 특검법'이라는 초특급 변수도 있다. 특검이 기소를 하거나 의혹의 증거를 찾아낼 경우 한나라당은 세력 이탈은 물론 예상 외의 패배를 맞볼 수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탈당 가세면 이회창 신당 파괴력 신당 60~70석 예상... '호남당' 전략 위기

◇구도=일단 다자구도가 예상된다. 다만, 현재의 정치지형이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짧은 기간이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정당 또는 정치세력은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노무현 대통령 정도로 평가된다.

이번 총선 지형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당선자가 총선에서 한나라당 내의 인적 청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탈 여의도' 정치를 강조해왔고 원만한 당정관계를 위해서도 이 당선자 측근 내지 참신한 우호세력의 원내 진출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공천권 다툼이 불가피하다.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지지를 선언하며 한나라당에 입성한 정몽준 의원의 역할론과 맞물려 공천 갈등은 확산할 여지가 많다. 갈등이 심해지면 박근혜의

광주·전남 누가 뛰나

1 광주 동구·남구

내년 4월 치러지는 18대 총선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혼전이 예상되고 있다. 현 정국 구도로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한나라당, 이회창 신당, 민주노동당 등 다자구도로 총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데다 물갈이 여론에 힘입어 입지자들의 도전이 줄을 이룰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 증감에 따른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은 공천 전쟁에 이어 본선에서의 혼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20개 지역구의 총선 경쟁 구도를 7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양형일 의원 아성에 박주선 前의원 도전장 민주 김정천·김종배 前의원도 출마 저울질

광주 동구 광주 정치 일변지로 꼽히는 동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한 양형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수성에 나서고 있다.

조선훈 총장 출신의 양 의원은 원만한 성품에 성실한 의정생활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권에서도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양 의원은 동구의 미래이자 성장 엔진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한데다 지난 4년동안 거의 매주 발품을 팔아가며 바닥을 다져 광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지역 조직이 탄탄하다는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 동구는 참여정부 관료 출신 등 평균 7~8명의 입지자들이 몰려있는 광주지역 여타 지역구와 달리 정치 신인들의 발길이 뜸한 상황이다.

그러나 광주 동구는 민주당 소속의 박주선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위 '3총3급'을 쥐는 등 비운의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는 박주선 전 의원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걸고 기존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전남 보성읍을 떠나 광주 동구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박 전 의원의 마지막 도전에 광주도 선후배를 비롯, 막강한 주변 인맥도 힘을 보태주자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형일 의원과 박주선 전 의원 모두 광주·전남지역 정치 분야 인재라는 점에서 이들의 대결 구도가 안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주선 전 의원 외에도 광주 동구에는 민주당 소속의 김정천 전 의원(16대)과 김종배 전 의원(15대)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운태·김민석 前의원 출마 여부 최대 변수 지병문 의원 수성 속 이용섭씨 등 행보 관심

광주 남구 지난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을 등에 업고 강운태 의원을 꺾어 파란을 일으킨 지병문 의원이 수성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 교수 출신으로 시민사회활동을 해왔던 지병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직설적인 화법과 개혁적 행보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광주시장, 내무부 장관 출신에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는 강운태 전 의원의 도전 여부가 남구 총선 구도의 변수다. 강운태 전 의원도 남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은 광주시장 경선 불출마, 민주당 탈당 대선 출마 선언, 열린우리당 입당 대선 불출마를 거듭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아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다.

여기에 광주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용섭 건교부장관도 남구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에 도전한 바 있는 정재훈 동아병원장도 목표를 한단계 올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정식 도전장을 던졌다. 또한,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만영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도 남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서울이 지역구인 김민석 전 의원의 남구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남구의 총선 구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11전12기만에 시의원에 당선되고도 7개월 만에 사퇴를 선언한 강도서 시의원의 도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健康新年

고품질 맛의 시대
맛있고, 탄탄하고, 색만 좋은 나린형 밭출도마토

도토리 토마토



도도리 토마토



나린형 토마토



칠드논강 토마토



문가 토마토



문가 토마토



문가 토마토

— 농가 직접에서 여름사레로 품종으로 특화된 400원 고품질 밭출도마토
— 농산물 직출신선으로 맛과 신선도는 물론입니다.
— 컴퓨터 밭출도마토 사먹고 맛을 즐기십시오.



주식회사 캡스종묘
☎ 10621 973-3082-4
WWW.CAPS.CO.KR